

보도시점 2026.03.30.(월) 08:00 배포 2026.03.30.(월) 08:00

주영한국문화원, 한국 민담과 호러의 결합... 윤지현 『And the River Drags Her Down』 작가 대담 성료

- 고딕 호러·미스터리와 한국 민담 결합한 서사 소개
- 장르문학을 통한 문화 교류 가능성 확인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이하 문화원)은 3월 27일(금), 작가 윤지현(Jihyun Yun)과 함께하는 『And the River Drags Her Down』 작가 대담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한국계 미국 작가 윤지현의 데뷔 장편소설 『And the River Drags Her Down』을 중심으로, 고딕 호러와 미스터리, 한국 민담적 상상력이 결합된 작품 세계를 영국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이야기는 저마다 제 뜻을 펼치는 한국미학의 정수입니다. 한국문학은 전통의 서사와 정서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의미를 확장하며, 세계 독자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세계인의 삶속에서 정서적 벼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K-컬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윤지현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출신의 한국계 미국 작가로, 시집 『Some Are Always Hungry』로 Prairie Schooner Book Prize를 수상했으며, 이번 작품으로 첫 장편소설을 선보였다.

○ 『And the River Drags Her Down』은 영국 대표 서점 워터스톤즈가 주관하는 아동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한국 민담을 바탕으로 한 장르 서사가 영국 내 아동·청소년 문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아동·청소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영국 문학 시장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 『And the River Drags Her Down』은 죽은 이를 되살리는 능력을 지닌 자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 민담에서 착안한 설정을 현대적 호러 서사로 확장한 작품이다. 작품은 ‘되살림’이라는 금기를 둘러싼 긴장과 불안은 통해 가족, 상실, 애도의 감정을 밀도 있게 풀어낸다.

○ 행사에 참석한 현지 관객들은 한국 민담적 요소가 고딕 호러와 결합된 서사에 큰 흥미를 보였으며, 익숙한 장르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맥락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이번 대담은 영국 작가 멜린다 솔즈베리(Melinda Salisbury)가 함께 참여하여, 장르문학을 통한 서사 구성 방식과 민담 및 신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두 작가는 호러와 판타지 장르를 통해 상실과 애도, 가족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적 서사와 민담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 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적 서사와 정서를 기반으로 한 현대 문학이 해외 독자들에게도 깊이 공감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한국문학과 문화를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붙임 1. 이음: 북-토크 3월 행사 개요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s.sun@kccuk.org.uk)
		담당자	실무관	박강인 (k.park@kccuk.org.uk)

□ 행사

- 행사일시 : 2025년 3월 27일 (금) 오후 6시 30분 (영국시간)
- 행사장소 : 주영한국문화원
- 초 청 자 : 저자 윤지현과 다수의 현지 출판 관계자들
- 행사내용 : 『And the River Drags Her Down』 소개 및 작가와의 대화 · Q&A 등으로 구성된 작가 대담 행사